

# 국어·만주어·몽골어 내포문주어의 표현 양상

최 동 권

## 1. 서론

국어, 만주어, 몽골어는 내포문에서 주어가 속격어미나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내포문주어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속격형이나,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대격형이 사용되는 분포는 언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의 속격형과 인용화내포문의 대격형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의 대격형은 국어와 몽골어에서만 쓰이고 있다.

내포문주어가 속격형으로 쓰이는 구문과 대격형으로 쓰이는 구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관형화내포문의 경우는 내포문과 상위문명사와의 관계에서, 명사화내포문은 내포문이 상위문에서 수행하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인용화내포문은 상위문동사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속격형과 대격형의 기저구조를 설정하고 여기에 주어인상규칙이나 동일명사구삭제규칙을 적용하여 속격형과 대격형 구문의 생성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시도는 주격형과 속격형, 그리고 대격형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주격형, 속격형, 대격형 사이의 의미차는 존재하는가. 이들이 선택되어 쓰이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별 언어의 특성을 밝히고, 내포문주어가 국어, 만주어, 몽골어에서 실현되는 조건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어, 만주어, 몽골어의 비교연구는 단순한 비교의 차원을 넘어 동일 계통의 언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자료는 시기적으로 앞설수록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선 시기의 자료는 그 대상이 문헌 자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의 문법의식에 기대어 내포문 주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른 시기의 자료가 연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모국어 화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대어도 적절히 인용하고자 한다.

## 2. 속격형 내포문주어

2.1 내포문주어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속격형은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에서 모두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공유하고 있다. 관형화내포문을 관계화와 보문화로 구분할 경우 국어와 마찬가지로 만주어나 몽골어도 어말어미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문과 보문을 형태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관형화내포문을 문법적 특성에

따라 관계문과 보문으로 구분하여 내포문의 주어가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면 관계문과 보문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다음 예문은 관계문에서 주어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속격형을 보여준다.

(1) 가. 沙門은 鑠<sup>ᄃᆞ</sup> 지<sup>ᄃᆞ</sup> 녀르믈 먹<sup>ᄃᆞ</sup>니이다(석상 24:22a)

나. 나랏 衆生<sup>ᄃᆞ</sup> 니불 오시 𠵵<sup>ᄃᆞ</sup> 매 머거든(월석 8:65a)

다. 나<sup>ᄃᆞ</sup> 부죡 𠵵<sup>ᄃᆞ</sup> 𠵵<sup>ᄃᆞ</sup> 시<sup>ᄃᆞ</sup> 이<sup>ᄃᆞ</sup>라(능엄 1:86a)

(2) 가. ubade sini wen sefu i yabu-re ulga bio? akün?(금병 68:28a)

여기에 네 溫 師父 의 타 -는 가축 있냐? 없냐?

나. ere gemu geren niyalma i age de urgun arame benji-he doroi jaka.

이 모두 여러 사람 의 兄 에게 경사 축하하여 보내-遁 禮의 物(이다).

(금병 76:20b)

(3) 가. Giyai Ging diyan -du minu tani-qu kümün bui bile.

吉慶店 에 내 아<sup>ᄃᆞ</sup> 사<sup>ᄃᆞ</sup> 이 잇더니.(몽노 4:20a)

나. ene nökül -yin kerči-gsen ebesü yekel-e бүдүгүн.

이 變 의 𠵵<sup>ᄃᆞ</sup> 集히 너무 𠵵<sup>ᄃᆞ</sup>그니.(몽노 1:24b)

위 예문은 관계문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속격형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1)은 국어 예문으로서 내포문주어 '鑠, 衆生, 부터'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있다. 예문 (2)는 만주어 예문으로서 내포문의 주어 wen sefu(溫師父)와 geren niyalma(여러 사람)이 모두 속격어미 i 와 함께 서술어 yabu-(타다)와 benji-(보내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3)은 몽골어 예문으로서 minu(일인칭단수 속격형)은 내포문서술어 tani-(알다)의 주어로, nökül(벗)은 속격어미 -yin 과 함께 kerči-(떨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보문에서도 내포문의 주어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있다.

(4) 가. 우흔 다 諸佛<sup>ᄃᆞ</sup> 머리셔 讚歡<sup>ᄃᆞ</sup>하시<sup>ᄃᆞ</sup> 마<sup>ᄃᆞ</sup>리시라(법화 6:179a)

나. 師<sup>ᄃᆞ</sup> 蒙山<sup>ᄃᆞ</sup> 와 저<sup>ᄃᆞ</sup> 鑠<sup>ᄃᆞ</sup> 韉<sup>ᄃᆞ</sup> 보시고(몽산:2a)

다. 六道衆生<sup>ᄃᆞ</sup> 주그며 사라가는 길<sup>ᄃᆞ</sup>헛(석상 13:17a)

(5) 가. si men king ni li ping el be kidu -re gūnin be ulhifi,(금병 73:6a)

西門慶의 李瓶兒를 그리-는 생각을 이해하고

나. ice coko i hūla-ra jilgan donjire de sain.(금병 76:4b)

새 닭의 우-는 소리 들음에 좋다.

(6) 가. činu jotung qudaldu-qu qorundu bi qoni qudaldu-ji ab-ad,

네 뿔 꿩이내 내 羊사,(몽노 6:3b)

나. činu törü-sen čaΓ adabesi sayin

네 난 환 証장 도타(몽노 8:19b)

위 예문들은 모두 보문들로서 예문 (4)는 국어 예문으로서 내포문주어 諸佛, 蒙山, 六道衆生이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예문 (5)는 만주어 예문으로서 내포문주어 si men king(西門慶)과 ice coko(새 닭)이 각각 속격어미 ni, i 와 함께 서술어 kidu-(그리다), hūla-(울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6)은 몽골어 예문으로서 činu(이인칭단수 속격형)이 내포문서술어 qudaldu-(팔다)와 törü-(나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관형화내포문에서 내포문주어가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현상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공유하는 특성으로서 관계화나 보문화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저에서부터 존재하던 속격형이 동일명사구삭제규칙에 의해 생략되었다고 보거나, 기저구조에서는 내포문의 주어로 쓰이던 것이 상위문으로 인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2.2.** 국어, 만주어, 몽골어 명사화내포문의 주어도 관형화내포문과 마찬가지로 주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주격형과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속격형이 모두 발견된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명사화내포문의 주어가 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7) 가. 𐮎의 𐮎며 𐮎를 맞본 거시라(소연 6:16)

나. 諸子 𐮎 아 𐮎 주그를 듣고(법화 5:158a)

다. 迦葉의 能히 信受호 讚歡 𐮎시니라(월석 13:57a)

(8) 가. si men king tere-i guwan ge el be tebeliye-he be sabufi,(금병 52:7b)

書門慶 그의 官哥兒를 안-음을 알고,

나. mini tuhe -re de si aiseme niyama fintambi?(금병 52:32a)

나의 떨어지-ㄷ 에 너 왜 가슴 아프냐?

(9) 가. činu kele-gsen anu minu sanaΓan -du neyile-be,

네 니 꺾 거시 내 펜각 에 맞도다.(몽노 1:15a)

나. jam -du baΓa-qula kümün -ü qariya-qui -yi sonus-qu bui -y-a

길썸 썰누면 사 꺾 의 뽕지즈 물 드리리라(몽노 2:25a)

위 예문은 명사화내포문에서 내포문주어가 속격형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 (7)은 국어 예문으로서 내포문주어 '썰, 아비, 迦葉'이 속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있다. 예문 (8)은 만주어 예문으로서 (8 가)에서는 tere(그)가 속격어미 i 와 함께 내포문서술어 tebeliye-(안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으며 (8 나)에서는 일인칭대명사 속격형 mini 가 tuhe-(떨어지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9)는 몽골어 예문으로서 činu(이인칭대명사 속격형)이 내포문서술어 kele-(니 꺾 다)의 주어로, 그리고 kümün(사람)은 속격어미 -ü 와 함께 내포문서술어 qariya-(꾸짖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내포문의 주어가 속격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속격형은 내포문이 상위문에서 주어로 기능하느냐 목적어로 기능하느냐 아니면 부사어로 기능하느냐에 관계없이 널리 쓰이고 있다. 다음 예문은 내포문이 상위문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예문을 제시한 것으로서 속격형의 형태가 두루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가. aša se-i golo-ho weile guwan-mu de bi kai.(역총 2:18)

아즈미 들 놀라-ㄷ 은 죄 關 某 의게 잇꺾니라.

나. si baibi mini gisure-re be wakalara dabala.(금병 65:37a)

너(는) 단지 나의 말하-ㄷ 을 비난할 뿐(이다).

다. mini gene-he de sadun mimbe ambula wakašaha.(금병 66:16b)

나의 가-ㄷ 에 親家 나를 매우 꾸짖었다.

(11) 가. yeke abaΓa-i kele-kü -ni jöb.

큰 兄 의 니 꺾 거시 올타.(몽노 3:5a)

나. bi erten kümün -ü usu udqu-qui -yi üje-beči erteken suru-Γsan

내 前에 사 ㅁ 의 물 갖기 ㅁ 보아시나 일즉 □호지

ügei bile.(몽노 2:22b)

못뿔얏 韁나.

다. Dn;yna nj@vty@; mt; dewgvgy^

우리의 움 에 그들 돌아갔다.

라. Xnyna nj@vy@nau dn vgz bt;ltt^

너의 움 을 나 방금 알았다.

예문 (10)은 만주어 예문으로서 (10 가)는 내포문이 상위문의 주어로 쓰인 구문으로서 aša se(아즈미들)이 속격어미 i와 함께 서술어 golo-(놀라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예문 (10 나)는 내포문이 상위문의 목적어로 쓰인 구문으로서 내포문의 주어 mini(일인칭대명사 속격형)이 서술어 gisure-(말하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10 다)는 내포문이 여격어미 de와 함께 상위문의 부사어로 쓰인 구문들로서 1인칭대명사의 속격형인 mini(나의)가 gene-(가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만주어는 명사화내포문이 상위문에 어떠한 성분으로 내포되느냐에 관계없이 내포문의 주어로 주격형과 속격형이 쓰이고 있다.

예문 (11 가, 나)는 중세몽골어 예문으로서 (11 가)는 내포문이 상위문의 주어로 쓰인 구문으로서 yeke abaΓa(큰 형)이 속격어미 i와 함께 서술어 kele-(내 ㅁ 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예문 (11 나)는 내포문이 상위문의 목적어로 쓰인 구문으로서 내포문의 주어 kümün(사람)이 속격어미 -ü와 함께 서술어 udqu-(긴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11 다, 라)는 현대몽골어 예문으로서 (11 다)는 내포문이 여격어미 @;와 함께 상위문의 부사어로 쓰인 문장으로서 Dn;yna(1인칭복수대명사의 속격형)이 내포문서술어 nj@(오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11 라)에서는 내포문이 상위문의 목적어로 쓰인 구문으로서 내포문의 주어 Xnyna(이인칭대명사 속격형)이 내포문서술어 nj@(오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몽골어도 국어나 만주어처럼 명사화내포문이 상위문에 어떠한 성분으로 내포되느냐에 관계없이 내포문의 주어로 주격형과 속격형이 쓰이고 있다.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의 내포문주어로는 주격형과 속격형이 모두 쓰이며 이러한 특성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공유하는 공통 특징이다. 관형화내포문에서는 관계화와 보문화에 관계없이 모두 속격형이 쓰이며 상위문명사의 종류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다. 명사화내포문의 속격형도 내포문이 상위문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계없이 두루 쓰인다.

속격형의 특성은 동일한 구문에서 쓰이는 주격형과 속격형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의 주어로 주격형과 속격형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격형도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대격형의 존재는 주격형과 속격형의 비교만이 아니라 대격형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그 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대격형은 인용화내포문과 접속문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대격형의 성격 규명도 함께 유기적으로 파악될 때에만 주격형과 속격형, 그리고 대격형의 특성이 명백히 들어날 것이다. 아울러 속격형의 특성을 개별 언어의 차원에서 먼저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공유하는 문법 기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4. 대격형 내포문주어

대격형 내포문주어는 인용화내포문, 관형화내포문, 명사화내포문, 그리고 접속문 등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인용화내포문의 경우 대격형은 간접인용문에서 주어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중세국어, 만주어, 몽골어 인용화내포문은 직접인용문이나 간접인용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미나 조사가 없다. 따라서 대격형은 직접인용문과 간접인용문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다음 예문은 인용화내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12) 가. ㉠<sup>ᄃᆞ</sup> 미 뵈워 일후믈 業이라 뵈야 니 鑠니라(월석 11:77)

나. 너나 天衆眷屬百千萬이 나 轉法罷고라 請罷거늘(석 13:58)

(13) 가. sun cuwan sunjaci ging ni dubede liobei be 'ukaka' seme donjifi

孫權이 오 경 말에 劉備 逃망罷다 罷여 듯고(삼역 10:21)

나. looye ere-be 'be lai guwang be dosimbuha' seme jili banjihabi.(금병 35:21b)

老爺 이 를 白來光 을 들엿다 하고 화 냈다.

다. jeo ioi jiyang gan be 'geli jihe' seme donjifi

周瑜 蔣幹 을 窺 왔다 罷여 듯고(삼역 7:2)

(14) 가. ger bultu amur geküle sir-a alta -yi erkim geju büü ögüle.(몽노 5:5b)

집이 다 平安靚면 黃金 을 貴타 靚야 닐랏지 말라

나. eyimü üdesi bolud naran unaji bayital -a man-i qana kebtükü Ɣajar -i erir -e 이리 저므리 靛 靛靛靛 우리 靛 어靛 잘 靛 을 靛靛즈라

eči gen-e.(몽노 3:15b)

가라 靛靛다

예문 (12)는 국어 예문으로서 대격형 '일후물, 내 '이 내포문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13)은 만주어 예문으로서 liobei(劉備), ere(이), jiyang gan(蔣幹)이 각각 대격어미 be 와 함께 서술어 ukaka(도망靛다), dosimbuha(들었다), jihe(왔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14)는 몽골어 예문으로서 sir-a alta(黃金)는 대격어미 -yi 와 함께 내포문서술어 erkim(靛타)의 주어로, mani(일인칭대명사 대격형)는 내포문서술어 erir-e eči(靛즈라 가라)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인용화내포문에서 대격형 주어가 쓰이는 현상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의 공통 특징이다. 대격형이 쓰이는 구문에 대해서는 우선 인용화내포문에서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을 선택하게 되는 조건과 주격형과의 차이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대격형이 내포문의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용화내포문의 원청자를 나타내는 상위문의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격형의 기저구조를 설정하여 기저에서는 주어이던 것이 주어 올리기라는 변형을 거쳐 상위문의 목적어로 인상되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이들이 기저에서부터 상위문에 존재하였고 다만 하위문의 주어가 동일명사구삭체규칙에 의해 삭제되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 대상을 지시하는 형태가 하위문의 주어와 상위문의 목적어로 함께 쓰여 대격형이 기저에서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구문이 있다.

(15) 가. enenggi mini sargan mimbe 'si beye joboho manggi amgafi ilicina'

오늘 나의 부인 나를 너 몸 피곤하니 자고 일어나려므나

sehe bihe.(금병 67:4b)

했었다.

나. geli li ming be 'si ebsi jio' seme hūlafi,(금병 65:3a)

또 李 銘 을 너 이리 오라 하고 부르고

다. amba hehe nakcu ilan sefu-i baru sunjaci eniye be 'cūn mei be dorakū

大 姪子 三 教師 에게 五 娘 을 春 梅 를 잘못

tacibufi šen el jiyei be derakūlame tooha' seme henduhe.(금병 75:35b)

가르치고 申 二 姐 를 모욕하며 꾸짖었다 하고 말했다.

만주어의 경우 예문 (15 가)에서처럼 내포문의 주어를 지칭하는 형태가 내포문에는 2 인칭대명사 si(너)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상위문에는 1 인칭대명사 목적격형인 mimbe(나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15 나)에서도 내포문의 주어를 지칭하는 형태가 내포문에는 2 인칭대명사 si(너)의 형태로 존재하며 상위문에서는 li ming(李銘)이 대격어미 be 와 함께 쓰이고 있다. 따라서 내포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로 인상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이상의 예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주어가 상위문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면 내포문에는 주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위문의 대격형을 인용화내포문의 원청자로서 대화의 상대를 지시하는 데 쓰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격어미 de 나 i baru 가 주어를 나타내는 be 와 함께 쓰이는 예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5 다)에서는 i baru 와 be 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i baru 는 ilan sefu(三教師)와 함께 청자를 나타내고 be 는 내포문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문의 주어 amba hehe nakcu(大姪子)가 원청자 ilan sefu(三教師)에게 sunjaci eniye(五娘), 즉 반금련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고자질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sunjaci eniye(五娘)이 대격어미 be 와 함께 서술어 tacibufi(가르치고)와 tooha(꾸짖었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대격어미 be 가 원청자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포문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몽골어의 경우에도 상위문에 쓰이는 대격형과 관련하여 인용화내포문의 원청자를 표현하는 격 형태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수 없다. 몽골어 인용화내포문에서 원청자를 나타내는 격 형태는 피인용문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설명문, 의문문, 명령문에 관계없이 여격어미 -;가 쓰이며 의문문이나 청유문의 경우 탈격 -ggv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용화내포문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대격어미 -u 와 함께 쓰이는 인용화내포문이 있다.

(16) 가. Vojty ygbgau 'mg gyulngj zj,;gu ee' utvty

수령 나를 너 영어로 말하느냐 했다.

나. Dgui mooy nau 'fulff 9 wgum njttjta' utvty^



선생님 그를 아침 9 시에 오라 했다.

다. Gg. ghsu 'vejueelng gbrnlmmga mfuvvfy' utr dtltu fuvfy^

아버지 형을 학교 성공적으로 졸업했다 하고 선물 주었다.

(17) 가. Dgui yg;ggv xbggau 'bgjuggi njthoo oo' utr gveevgy^

선생님 나에게서 너를 내일 오느냐 하고 물었다.

나. Ttr yg;g; xbggau 'bgjuggi tjm dkvyk' utr htlvty\*

어머니 나에게 너를 내일 일찍 일어난다 하고 말했다.

다. Dgui yg;g; xbggau 'Vklkyukv jee z.yg' utr htl.^

선생님 나에게 너를 한국 으로 간다 하고 말했다.

라. menggelig-yi ire gejü menggelig-tü kelebe.(황금사:13)

멥게릭 을 가라 하고 멥게릭 에게 말했다.

몽골어 인용화내포문에서는 원청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격어미 -;나 탈격어미 -ggv가 쓰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원청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격어미 -u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문 (16 가)의 피인용문은 의문문으로서

ygbgau(나를)이 mg(너)께와 함께 동일대상을 지시하면서 원청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6 나)는 명령문, (16 다)는 설명문으로서 피인용문의 성격과 관계없이 mooyнау(그를), ghsu(형을)이 원청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예문 (17)에서는 원청자가 아닌 피인용문의 주어가 대격형으로 쓰이고 있다. (17 가)에서는 -ggv, (17 나, 다)에서는 -;가 원청자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인용문의 주어가 대격형 xbggau(너를)로 쓰이고 있다. 이때 피인용문의 주어는 원발화자나 원청자가 아닌 제 3 자를 나타낸다. (17 라)는 중세몽골어로서 menggelig-tü 와 menggelig-yi 가 동일 대상을 나타내는 대격형과 주격형으로 함께 쓰고 있다. 이상은 몽골어 인용화내포문에서 쓰이는 대격형이 피인용문의 주어를 나타내며 원청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용화내포문의 주어가 주격형을 선택하는 경우와 대격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조건도 아울러 밝혀져야 한다. 국어의 경우 대격형이 선택되는 조건으로 서술어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주어에서는 서술어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18) 가. si men king be 'ilhai yafan i bithei boode bi' sembi.(금병 34:25a)

西門慶을花園의書房에있다한다.

나. dara de unuhe jaka be ainci 'ulin' seme gūnifi,

허리에 썰 거 슬 응당 貨物이라 꿰여 꿰각꿰고(청노 2:15)

다. unenggi boode gemu sain oci, suwayan aisin be 'ai wesihun' sere

진실로 짐이 다 平安 꿰면 黃金을므슴 貴타 평

babi,

것이시리오.(청노 5:8)

(19) 가. damu mimbe 'ere emu cuse be ging bithe hūlara basa obume buhe'

다만 나를 이 한 비단을 經書 읽는 대가 삼아 주었다

seme ala.(금병 62:20a)

하고 아뢰라.

나. mimbe 'niyalma de gucu arame tehebi' seme hendu.(금병 67:14a)

나를 사람 에게 친구 삼아 앉아 있다 하고 말해라.

다. ejigen be 'ini gisun be gaimbi' seme gūnin be bahafi,(금병 18:21b)

主人을 그의 말을 취했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

만주어에서도 국어에서 인용화내포문의 주어가 대격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조건으로 제시된 서술어에서는 예외 없이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예문 (18)은 국어에서도 대격형이 쓰이는 서술어들이다. (18 가)에서는 bi(있다)가, (18 나)에서는 명사 ulin(화물), (18 다)에서는 wesihun(貴타)라는 형용사가 내포문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내포문의 주어는 모두 대격어미 be 에 의해 표현되어 국어와 일치한다. 그런데 예문 (19)의 내포문 서술어 buhe(주었다), tehebi(앉아 있다), gaimbi(취했다) 등은 국어에서라면 주어가 대격형으로 표현될 수 없는 서술어이지만 만주어에서는 모두 대격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대격화 현상이 인용화내포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에서도 내포문의 주어가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고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국어, 몽골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20) 가. 오직 썰량 鞞며 □물 맞본 거시라(소언 6:16)

나. ⊛를 치위에 길 일후물 마그라(두언 23:15)

다. 이 鏞 수를 하 잇 鏞 酒泉郡꺄로 가디 ㉠호㉡ 恨꺄鑠다 꺄니라(두언 15:40a-b)

(21) 가. :kjr@nau tyt ykbsu g.@vy@su dn vgz bt;ltt

도르지 를 이 책을 삼 을 나 방금 알았다.

나. Xgbgau nj@vy@nau dn vgz bt;ltt

너를 음 을 나 방금 알았다.

(22) 가. Ygbgau hkkl n;@vty uegypsu xn bt;th oo\$

나를 밥 먹은 식당을 너 아느냐?

나. Ygbgau mfj@vfy tbytlunau mg bt;yt^

나를 태어난 병원을 너 안다.

예문 (20)은 국어 명사화내포문으로서 '썰, ㉡, 술'이 대격어미와 함께 내포문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21)은 몽골어 명사화내포문으로서 (21 가)에서는 :kjr@nau(:kjr의 대격형)이 내포문서술어 g.@(사다)의 주어로, (21 나)에서는 Xgbgau(이인칭대명사 대격형)이 내포문서술어 nj@(어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 (22)은 몽골어 관형화내포문으로서 Ygbgau(일인칭대명사 대격형)가 내포문서술어 n;@(먹다), mfj@(태어나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들 내포문의 주어는 속격형으로도 나타나는데 대격형과 속격형 사이에는 거의 의미 차이가 없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내포문 주어의 대격형은 인용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 관형화내포문에서 두루 확인된다. 이러한 대격형의 실현조건을 인용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 관형화내포문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이들을 범주에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몽골어 대격형은 접속문에서도 두루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은 몽골어 접속문에서 하위문의 주어로 대격형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가. Ygbgau nj@mtl xn holtr dga^

나를 오도록 너 기다리고 있다.

나. Dn nj@mtl xn holtr dga^

나 오도록 너 기다리고 있다.

(24) 가. Dgmsu nj@.tl ;kjr hgjnyg^

바트를 오면 도르지 돌아간다.

나. Dgm nj@.tl ;kjr hgjnyg^

바트 오면 도르지 돌아간다.

(25) 가. Dn ygvnga dkl@mklkk hf;ff; veevgy

나 나이들도록 시골에 살았다.

나. \*Ygbgau ygvnga dkl@mklkk hf;ff; veevgy

나를 나이들도록 시골에 살았다.

예문 (23)은 연결어미 @mtl 에 의해 연결된 종속접속문으로서 (23 가)에서는 Ygbgau(일인칭대명사 대격형), (23 나)에서는 Dn(일인칭대명사 주격형)이 하위문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24)도 연결어미 @.tl 에 의해 연결된 종속접속문으로서 (24 가)에서는 대격형 Dgmsu\* (24 나)에서는 주격형 Dgm 가 하위문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들 구문에서 대격형과 주격형 사이에 특별한 의미 차가 있어 보이지 않고 대격형이 하위문이나 상위문 서술어의 목적어로 쓰인 것도 아니다. 예문 (24)는 상위문의 서술어와 하위문의 서술어가 모두 자동사로서 대격형이 서술어의 목적어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접속문에서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문 (25)처럼 대격형이 쓰이지 못하고 주격형이 쓰인다. 동일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격형만이 쓰이고 대격형은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대격형이 하위문의 주어를 지칭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어가 대명사나 보통명사일 때는 대격형으로 쓰이는 경향이 뚜렷하고 유정물이나 한정되지 않은 무정물일 때는 주격형으로 쓰이며 이 경우에도 주어가 한정되면 대격형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접속문의 대격형이 갖는 이러한 특성이 인용화내포문이나 관형화내포문, 명사화내포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내포문과 접속문을 구분하고 내포문에서도 인용화내포문과 관형화, 명사화내포문을 구분하여 하위문의 주어가 쓰이는 현상을 분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방법보다는 대격형이 쓰이는 기재를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격형과 속격형, 그리고 주격형의 관계를 함께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대격형을 개별 언어의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함께 공유하는 문법 기재로서 이해할 때 이들의 특성이 명백히 들어날 것이다.

## 4. 결 론

국어, 만주어, 몽골어는 내포문에서 주어가 속격어미나 대격어미와 함께 쓰이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속격형은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에서 쓰이며 이는 국어, 만주어, 몽골어의 공통적 특징이다. 그리고 인용화내포문의 대격형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에서 모두 쓰이고 있으며 관형화내포문, 명사화내포문의 대격형은 국어와 몽골어에서만 쓰이고 있다.

내포문주어가 속격형으로 쓰이는 구문과 대격형으로 쓰이는 구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형화내포문은 내포문과 상위문명사와의 관계를, 명사화내포문은 내포문이 상위문에서 수행하는 통사적 기능을, 그리고 인용화내포문은 상위문동사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저구조를 설정하여 속격형과 대격형의 구문의 생성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주격형, 속격형, 그리고 대격형 사이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주어나 몽골어에서 속격형과 대격형이 널리 쓰이는 것은 이들 언어에 주격어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주어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위문 명사와 내포문 주어의 거리가 멀어지면 주어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지고 상위문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그 결과 속격어미나 대격어미가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속격형이 관형화내포문과 명사화내포문에서 두루 쓰이고 대격형도 인용화내포문 이외에 관형화내포문, 명사화내포문에서 두루 쓰이고 있다. 이러한 속격형과 대격형을 각각 다른 통사, 의미론적 기재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별 언어의 특성에 의거하여 그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유형론적 입장이든지 계통론적 입장이든지 이들 속격형과 대격형의 실현조건과 차이점은 국어, 만주어, 몽골어가 공유하는 문법적 특성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박은용(1973) "만주어문어연구 제 2 집", 형설출판사.

서정목(1982) '15세기국어 동명사 내포문의 주어의 격에 대하여', "진단학보 53·54", 진단학 회.

우순조(1995) '내포문과 평가구문', "국어학 26", 국어학회.

이광호(1976) '중세국어속격어미의 일고찰', "국어국문학 70".

이기문(1978)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최동권(1987) '국어와 만주어 명사구내포문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국어·몽골어·만주어의 의도구문 비교연구', "알타이학보 9", 한국알타이학 회

愛新覺羅·烏拉熙春(1982), "滿語語法", 民族出版社, 北京.

Bawden, C.(1955) Altan Tobči, *Göttinger Asiatische Forschungen*,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oppe, N.(196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Intor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Le.vgy.gy;gy I^(1955) Bkyukl htlyna ouvnau gyunlgh mehga gvee;gl; \Dgui\ :euggj^ 2

(1961) *Kjxny wgunay bkyukl htl poa^ Dtrny hkm^*

Fyfjdgzy W^(1994) *Kjxny wgunay bkyukl htlyna ou poa^ Ed^*

"ojt.@kxnj D^ ygi(1989) *Kjxny wgunay bkyukl htlyna fuoldtjpoa^ Ed^*